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12월 30일(금)

...(음력 12월 8일)...

Пятница

30 декабря 2022г.

№ 50 (1201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레닌광장에 설치된 새해맞이 율카와 얼음 조각상.

(이예식 기자 촬영)

존경하는 사할린 주민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명절은 사랑과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 사할린 한인들에게는 커다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사할린 한인들의 단합과 단결, 사할린주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잘 성취될 수 있을 거라 전망합니다.

새해에 모든일이 형통하시고, 건강하시며, 친지 간에 사랑과 지인과 친구들 간 존중을 기원합니다!

오진하 사할린주 한인협회 회장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2022년이 저물어갑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3년째 계속 이어지는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져 세계가 나뉘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에 사는 우리 동포들, 한국에 영주귀국 하거나 취업하는 사람들에겐 러시아-한국행 항공 직항이 없어지는 것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경이 쓰이고, 정신적인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 와중에 지속적으로 우리 민족지를 뒷받침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특히 장기간 광고를 내주신 전용식 <라직스> 치과병원 원장, <사흐콤> 회사 이용남 대표이사, <플러그랜드> 회사의 서예브게니 대표, 한국에서 늘 응원하시는 사할린동포영주귀국협회 임원 여러분, 사할린동포를 중요시 여기고 따뜻한 인연이 된 KIN단체, 거의 15년간 네이버 카페에서 우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정성훈 피디님, 이 블로그를 통해 우리 신문을 후원하기로 한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 드립니다.

신문에 글을 투고해주신 KBS라디오 신원섭 국장님, 아름다운 한국 시를 소개하고 후기를 나누시는 허진원 작가님, 우리 한민족 지 독자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사할린주 한인협회를 비롯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등 여러 동포 단체의 신문 구독 또는 정신적, 재정적 지원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점점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사할린 동포 사회가 똘똘 뭉쳐 단결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강한 목소리로 사명감을 이어주는 우리 한민족지를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평화를 비는 마음으로 우리 독자 여러분과 귀댁의 건승, 안녕과 부유함을 기원하고, 독자들이 새고려신문과 연을 끊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고려신문사 대표 배 빅토리아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새해와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가오는 명절은 절정에 이른 한겨울에 가장 따뜻하고, 밝은 느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 명절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일들을 잠시 멈추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아주며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과 사랑의 말을 전하게 하고, 부모님에게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며, 성탄 트리 아래 추위 할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물을 받아든 아이들의 큰 기쁨을 즐겨야 바라보게 하고, 친구들과 따뜻하게 새해 잔치를 나누게 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천 명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노후주택으로부터 잘 정비된 주택으로 입주하여 새로운 생활의 질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도로와 공공시설을 건설했으며, 주거지의 보수공사를 잘 마쳤고, 의료지원의 접근성도 향상시켰으며, 고령세대와 다자녀 가정에 도움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나란히 우리는 지나가는 해에 동반된 어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가치있게 사용했고, 버텼으며,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려고 했을 때 우리 공동사업의 결과는 마침내 사할린주와 전 러시아의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친애하는 주민 여러분! 마법 같은 새해의 전야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품은 소원의 성취를 선사해주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과 서로 간의 이해가 깃들고, 행복과 건강과 행운과 시작된 모든 일들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존경하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2023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 보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펜데믹과 복잡한 국제관계 및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동포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 사할린 동포사회는 그 어려웠던 지난 세월을 현명하게 잘 견디면서 한민족의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 사할린 동포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힘들고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다면 모두 잊어버리시고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사할린 동포 여러분!

2023년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저희 출장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2022년도 미시행된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자 입국 방안 및 2023년 영주귀국 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 코로나 사태와 인천-사할린 직항노선 부재로 인해 미실시되고 있는 유해 봉환 사업, 영주귀국하신 1세대 어르신들의 사할린 역방문사업, 차세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동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동포사회 전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항상 동포사회와 소통하여 동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 나갈 것입니다. 동포사회 여러분들도 지혜를 모아 동포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은 토끼의 해로서 풍요와 번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도 사할린 동포사회에 풍요와 번창이 깃든 한 해가 되길 바라며 2만5천여 사할린 거주 동포분들과 한국에 거주하시는 3천여 사할린 출신 한인동포분들의 가정에서 화목과 건강을 기원하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유즈노사할린스크대한민국출장소장 박상태



한국에서 일러스트레이트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사할린 출신 정 마리나

12월 초에 한국 방문 중 한국에 잠깐 계시던 사할린 우리말방송 이복순 기자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인천 국제 1인미디어 페스티벌'에 같이 갈 생각이 없는가?"라고 하였다. 이 페스티벌에 사할린 출신 정 마리나 일러스트레이트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한다고 했다. 좋은 취재거리가 될 것이란 생각에 흔쾌히 가기로 했다. 페스티벌은 인천의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무슨 내용인지 아무 것도 모르고 찾아갔다. 알고 보니 페스티벌은 1인 미디어를 주제로 한 무대행사, 전시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제 행사였다. 이번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유튜브와 방송인들이 마스터클래스, 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었다.

1인 미디어와는 별 관계없는 마리나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자그마한 부스에서 자기 작품을 소개했다. 그는 여러 기회를 이용해 일러스트레이트 작가로서 널리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있다. 그의 활동 작가로서의 이름은 'IAMARINATEN' 이다.

마리나는 2004년에 동서대학교의 '사할린 청소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1기 선정자 중 하나였다.

"동서대학교를 제가 간절하게 입학하고 싶었습니다. 면접 때 수상작, 다양한 이력자료, 포트폴리오 등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면접 때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패션디자인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서대에서 아주 좋은 교수님과 친구들 만나 공부하는 시간이 재미있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창의력을 표현하게 하는 일이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주제를 저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고, 아이디어를 현실 작품으로 만들수 있어서 뿌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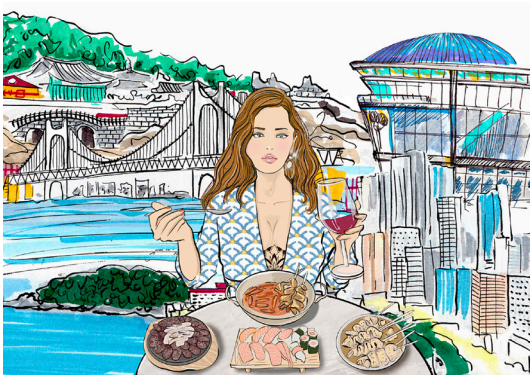


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학교 덕분에 디자인도 배우고, 시간이 남아 복수 전공으로 영어를 하면서 졸업할 때 두 가지 졸업장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정 마리나가 동서대 학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리나는 타고난 창의력을 갖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다. 그가 동서대 4학년 때 미국 패션 공모전 본선에 올라간 것이다. 이 공모전에는 세계 91개 대학(30개국)에서 작품 420여 점이 출품됐으나 이 중 62점만이 플로리다에서 열린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오른 작품은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미주와 유럽 대학들이 대부분 차지했으며 한국에서는 정 마리나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한 기사는 본지에도 실린 기억이 있다. 이렇게 그동안 정 마리나는 부단히 성장을 해온 것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9동양어문 학교를 졸업한 마리나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미술학교에서 그림 그리는 기술을 익혔다. 동서대를 졸업한 후 한국에 남았다.

"저는 배운 전공을 유지하려고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러시아 브랜드에서 근무하여 왔다 갔다 했지만,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험 삼아 한국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빨리 적응하는 스타일이라 어디 가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라고 마리나가 설명했다.

디자이너로 활약하면서 그는 약 10년 전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저는 현실과 상상 사이 다양한 일상, 라이프스타일 일러스트를 그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그림을 통해 일상 속 짧은 여행으로 잠깐이라도 떠나고 그리고 긍정적인 웨이브(파도=느낌)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마리나가 말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컬렉션은 <My Beautiful Mara>이다.

'작품 속 인물의 이름인 '마라(Mara)'는 그리스어로 '영원히 아름답다'는 의미이며, 항상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한다. 작가는 인물의 생각과 행동 등 작품 속에 다양한 의미를 담으로써 항상 아름답게 살자는 메시지를 표현한다. 또한, 같이 식사하는 것처럼 당신의 하루를 응원하는 그녀.'라고 마리나 작가는 소개하고 있다.

그녀는 현대 팝아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어를 많이 쓰며,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 3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그는 한식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개최한 여러 콩쿠르에 참가하고, 수상도 많이 했다. COEX가 주



최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2020년 X-mas Festival 에서 전시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대규모 콩쿠르 중 하나다. 전시가 점점 많아져 올해만 해도 10개가 넘는 것 같다. 주로 단채전인데 올해 가을에 부산 서면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거기에는 3가지 시리즈를 소개했는데 하나는 <My Beautiful Mara (마이 뷰티풀 마라)>이고, 올해 그린 <NEURO(뉴로)> 시리즈, 특별히 이 전시를 위한 <Mara in Busan(마라 인 부산)> 시리즈이다. 마리나는 그녀가 무척 좋아하는 도시인 부산에서 개인전이 열려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마리나는 여기 사할린에서도 전시하기도 했다. 작년에 그의 작품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마야크(등대)'아트관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출품되었다. 주최 측에서 연락이 와서 마리나는 기쁜 마음으로 사할린에 몇 가지 작품들을 보냈다. 프랑스를 비롯해 외국 활동도 시작했다. 한국 여러 매체들에서 그녀의 인터뷰도 뜨고 있어 그녀의 실력이 인정돼 일취월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리나는 매일 그림을 그리며 풍부한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탄하게 된다.

"2023년 계속적으로 국내외 전시를 하면서 다양한 행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활동이 작가의 성장과 신뢰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회에서는 제가 작가로 활동하지만, 디자인 분야에서 또한 전문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내/해외 브랜드와 콜라보 작업을 많이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My Beautiful Mara> & 값없이 주어지는 하루의 소중함을 말하는 <BUY THE DAYS>시리즈를 좀 더 키우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행복입니다. 작가로서 제가 저의 작품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향후 기획과 작가로서의 전망을 밝혔다.

마리나는 본 지상을 통해 꼭 전해주고 싶은 인사말이 있다고 부탁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사할린의 유일한 한국어 신문의 연말 기사에 제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사할린에 계신 저의 사랑하는 가족(부모님, 남동생과 올케), 우리 소중한 친척분들, 제가 다니던 사할린 믿음·소망·사랑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 저의 친구들, 교수님, 동창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알게 돼 좋은 인연 된 모든 분들을 비롯해 새고려신문 모든 독자들에게 2023년을 더 소중하고, 더 의미있게, 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각 소중한 만큼 우리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삼시다. 더불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마리나가 새해인사를 전했다.

아름답고, 훌륭하게, 내일을 향해 소중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정 마리나 작가를 응원한다. 우리는 정 마리나 작가가 자랑스럽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2023년 1월의 긴 연휴, 사할린 주민들을 기다린다

제작된 2023년 달력이 러시아 연방 정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됐다. 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2월31(토) - 2023년 1월 8일(일)까지 러시아에서 새해 및 성탄절을 맞는 연휴가 시작된다. 2023년 일요일과 겹치는 1월 1일과 8일 공휴일은 2월 24일과 5월8일 대체공휴일로 옮겨간다.

따라서 다음 러시아의 긴 연휴는 2월23일부터 2월26일까지가 되어 러시아 연방 국민들은 연이어 4일을 쉬게 된다.

Длинные выходные ждут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в январе 2023 год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й календарь на 2023 год уже утвердили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Согласно документу, с 31 декабря 2022 года по 8 января 2023 года в России наступят всеобщие выходные, связанные с празднованием Нового года и Рождества Христова. Так как 1 и 8 января выпадают на воскресенье и совпадут с нерабочими праздничными днями, их перенесут на 24 февраля и 8 ма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ледующие длинные выходные в России наступят с 23 по 26 февраля. Граждане РФ будут отдыхать четыре дня подряд.

특수군사작전 장병들을 위한 새해맞이 방한용품과 선물, 카드 등 수집

새해를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이 방한용품, 약품, 간식, 유치원과 학교 학생들이 쓴 새해 카드와 위문편지

를 수집했다. 수집된 위문품들은 제68군단 본부에 전달됐다.

"이는 단순히 예쁘게 만든 것만은 아니다. 아이들이 만든 카드와 편지에는 아이들의 선한 바람이 담겨있다. 우리는 장병들에게 다가오는 새해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속히 그들이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고 '체부라시카' 유치원의 부원장인 마리나 노가예와가 전했다. 이 유치원 생들이 새해 카드와 편지를 썼다.

К Новому году сахалинцы собрали теплые вещи, подарки и открытки для бойцов СВО

В канун Нового года ж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брали теплые вещи, медикаменты, сладости, новогодние открытки и письма бойцам от воспитанников детских садов и школ. Их передали в штаб 68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 Это не просто красивые поделки. В каждой детской открытке — добрые пожелания. Мы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ем наших солдат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годом и желаем им скорее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к своим семьям, — поделилась замдиректора детского сада Марина Ногаева.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ого сада «Чебурашка» сделали и подписали праздничные открытки.

체호브 센터, 어린 관객들에게 만화책 선사

12월 23일(금)부터 사할린 체호브 국제 연극센터가 연극 마라톤을 시작했다.

체호브 센터는 가장 먼저 어린 관객들에게 새해맞이 선물로 '날아다니는 배'(6세 이상) 만화책을 준비했다.

만화 속에는 이완과 즐거운 놀이, 고슴도치 할멈, 폴칸과 러시아 민화 속 인물들의 새해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4개의 창작 동화가 있다고 체호브센터가 전했다.

사할린 극장의 타치야나 코르네예와 관장이 이런 창작 아이디어를 냈다.

"수년간 계속 우리는 어린 관객들에게 새해 제과선물을 선사해왔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극장에 대해 뭔가 좋은 기억을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2년 전 우리는 책 '해로운 조안'(6세 이상)을 출판했다. 사할린의 아동들이 좋아해서 우리는 이 방면을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지금 아이들은 '유쾌한 이야기' 특별 출판물을 받아보고는 눈을 반짝이며 극장 로비에서 직접 읽기 시작한다. 만화책을 만든 것은 최고의 아이디어였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타치야나 관장이 말했다.

이에 대한 작업은 새해 방학 훨씬 전에 시작됐다. 사할린의 극장 역사상 최초로 만화 제작에 대규모 팀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희곡 및 문학 부문 담당 크리스티나 제두히나-사드루고, 홍보 전문가 안나 스쿠드노와가 미래 만화를 위한 이야기를 고안해냈다. 사진작가 세르게이 크라스노우호브는 새해 연극 활동을 준비하는 배우들과 사진 촬영을 진행했고, 이후 마케팅 및 극장 홍보부 직원들의 피땀 어린 작업이 시작됐다.

"각각의 사진을 그래픽 편집으로 제작하고, 숲, 늪, 러시아 오토막 등 다양한 이야기 속 위치에 주인공들을 배치시켰다. 총70장 이상의 사진이 제작되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동포 역사 캠페인 (달력제작+도서출판) 성공적으로 마무리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3' 제작과 이희팔회장의 구술기록 "유언" 한국어 번역출판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와 모금을 통해 제작해 왔으며, 올해는 댓글을

원과 공유, 직접기부 등으로 6,037명이 참여했고, 총 3천 300부를 제작하였다. 사할린 현지에는 벽걸이(1,190), 탁상용(200) 총 1,390부를 보내어 지난 12월 16일경 받았고, 국내에는 영주귀국 동포들에게도 배포하였으며, 이중언어를 교육하는 여학원과 대한고려인협회에도 배포되었다. 제작과 운송에 필요한 부족한 재

정은 재외동포재단과 NH농협생명의 후원으로 충당되었다. NH농협생명은 8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이희팔(1923~2020) 선생님의 구술을 담은 기록 "유언"의 한국어 출판을 위한 모금도 함께 진행하였다. 출판비 전액을 모금하지는 못하였지만, KIN의 사업비 등으로 완성, 11월 28일부터 서점

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나가사와 시게루 선생님의 꼼꼼한 기록 덕분에 "유언"은 마침내 2019년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이를 KIN에 전해준 재일동포들의 활동 덕으로 한국어출판이 이루어졌다. "유언"의 한국어 출판은 사할린 동포를 이해하고, 사할린 동포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저물어가는 해의 가장 빛나고 중요한 사건 또는 행사, 그리고 신년을 향한 기대

임 엘비라,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

저물어가는 2022년은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에서는 빛나고 중요한 대중적 사건들이 가득찬 해였습니다.

7월에는 훌륭한 졸업식을 했고, 무사히 학기를 마쳤으며, 9월에는 재능있는 신입생들이 입학했습니다. 교수진과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의 여러 지역 - 사마라, 세와스토폴리, 톰스크 등 - 에서 우리 대학에 공부하러 옵니다.

동양학과와 한국어 교수들은 전통행사 - 한글날, 말하기 대회, 한국 문화 경시대회, 한국 공예 장인 박람회 - 외에 새로운 형식의 온라인 퀴즈대회 참가에 관심을 끌고, 학술회 참가를 독려하며, 첫 논문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신문지상을 통해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의 모든 동료들에게 밝아오는 2023년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동료 교수님들에게 건강과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재능있는 학생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최영철, 태권도 사범:

저물어가는 2022년에는 정말 많은 빛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빛나는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아름다운 혼례식을 장엄하고도 더할 나위없이 아름다운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성당에서 올렸거든요.

친척 수가 많았었고, 지리적으로 보아도 친척이 여러 곳에서 살고 있으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관련된 일들은 많은 감상과 좋은 추억을 안겨주며, 평소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에 대해 민감한 감각을 확장 시킵니다!

바로 해마다 각 나라들을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터키에서 긴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현재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이 올해보다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레나 이콘니코와, 사할린국립대 러시아어 및 문학 교수:

아시다시피 2022년은 러시아 민족 문화 유산의 해로 선포되었으며, 실제로 올해 우리는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다양

한 민족의 문화적 가치 융합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한 세계 역사에 있어 우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1세기 1/4분기의 인류는 글로벌 또는 사적인 질문에 즉각 응답하는 공간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계는 뿌쉬킨의 소설 '대위의 딸'에서와 같이 진실의 편에서 조국의 영광을 옹호하는 사람들 (미로노브 및 그리노브), 그리고 개인의 편안함과 육체적 안녕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 쉬와브린)로 분명히 나뉘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러시아를 위해 자신과 자기 미래를 희생할 준비가 된 많은 진정한 사람들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표트르 1세 탄생 350 주년 또는 보로지노 (Borodino) 전투 200 주년과 같은 기념일과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80년 전 1942년에 아흐마도와는 '위대한 러시아 단어'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 '용기'를 썼습니다.

내년에는 러시아 고전 문학을 다시 읽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레브 톨스토이의 불후 명작 <전쟁과 평화>: 쿠투조브, 제니소브, 돌로호브, 볼콘스키·로스토브 가족, 그리고 쿠라긴 가족 모두가 서로에 대한 과거의 분노를 잊고 같은 마음으로 보로지노 전투장에서 만납니다. 도스토옙스키, 코롤렌코 또는 체호브의 작품들에서도 의미 있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스토옙스키, 콜로렌코 또는 체호브의 고전 문학에서만 아니라 성자들의 전기와 기도문에서도 힘과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성용, 사할린 화백:

올해는 사할린 예술전문대에서 30년 동안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술창작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 작품 일부(풍경화)가 다른 사할린 미술가들의 작품과 함께 9월에 모스크바 국립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사할린 및 쿠릴열도: 시간을 뚫어'전시회에 출품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흙스크박물관에서 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전시는 한 달 동안 하였고 작품작 일부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의 소장품이고 일부는 제 개인 작품입니다.

정월에 우리 사할린 미술동맹 전시관에서 사할린 예술전문대 디자인과 개설 30주년을 맞이합니다. 현재 기념 전시회를 준비 중인데 물론 제 작품도 전시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경자, 연금자:

올해는 저에게 나쁘지 않은 해였습니다. 제가 드디어 병을 이겨내고 다시 중·노년을 위한 무료 댄스수업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새 춤을 배웠고 사계절 동안 춤을 많이 추었습니다. 이젠 정말 훌륭합니다. 춤은 마음을 유쾌하게 만듭니다.

저의 딸은 행복을 찾아 올해 약혼했습니다. 저로서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게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함께 시간을 많이 즐겁니다.

저는 전쟁 없는 신년, 팬데믹 없는 신년을 원하고 사람들이 더욱 지혜로워지고 친절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할린 섬이 번영하기를!

그리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걸 간절히 원합니다.

최 빅토리아, 세관문제 컨설턴트:

우크라이나에서 특수작전은 사람들의 삶을 전전과 전후로 나누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가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것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 년은 우리나라로서는 중대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것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건들에 대해 말하자면, 올해 올레그 쿠즈네초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중앙도서관이 개최하는 문학콩쿨에서 우승하고 상으로 '내가 바다가 될 때'라는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책을 손에 들고 때로 눈물겹도록 감동을 주는 좋은 후기를 읽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밤새도록 책을 읽었는데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달릴 곳이 없다> 오토바이 경주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조직적인 면에서 훌륭한 경험을 얻었고, 스트레스 속에 일을 했어도 일을 잘해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을 오가는 연락선이 생겨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영주귀국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안아주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사건을 우선 순위에서 바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가정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배순신 기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기적 / 마종기

추운 밤 참아낸 여명을 지켜보다
새벽이 천천히 문 여는 소리 들으면
하루의 모든 시작은 기적이구나.

지난 날 나를 지켜준 마지막 별자리
환해오는 하늘 향해 먼 길 떠날 때
누구는 하고 싶었던 말 다 하고 가리
또 보세, 그래, 이런 거야, 잠시 만나고...

길든 개울물 소리 흐려지는 방향에서
안개의 혼들이 기지개 켜며 깨어나고
작고 여린 무지개 몇 개씩 골라
이 아침의 두 손을 씻어주고 있다.

"한 해가 저물입니다. 지구는 부지런히 태양 주변을 돌았네요. 기적과도 같은 거리를 유지하며 참 잘도 빛을 조절했습니다. 달의 움직임은 어땠고요. 덕분에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는 빛과 바람을 쐬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더웠어도 인류는 지구에서 사라졌겠지요. 이보다 조금만 더 추워도 결국 인류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아무리 과학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작정하고 일탈하는 궤도를 떠올리면 아찔합니다.

이제껏 제가 느꼈던 강추위는 11월의 노글리키였습니다. 그래 봤자 11월, 옷을 그렇게 따뜻하게 입을 이유가 없기도 했겠지요. 만만하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호텔 밖을 나서지 않았을 정도. 서두르다 보니 택시에 장갑을 두고 내리는 건 기본이었고요. 슈퍼마켓에서 왜 그렇게 작은 보드카와 꼬냑들을 파는지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거라도 마셔야 체온이 올라갈 테니. 궁금했던 건, 그럼 12월의 노글리키, 1월의 오히려 더 추울 텐데, 과연 그 체감온도를 다들 어떻게 이겨내는지 궁금했던 기억입니다. 아무리 춥다고 해도 서울은 어느 정도 상식적인 겨울 온도에서 머무는 편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도 기적. 내쉬는 일도 기적. 뿡하고 방귀를 뀌는 것도 기적입니다. 부지런히 심장은 뛰는 중인데, 이게 또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혈압은 너무 높아서도 낮아서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제 머릿속의 생각을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하는 교감 역시 기적입니다. 새가 날아다니네요. 요것도 기적. 타르코프스키가 '희생'을 재촬영 하는 모습 역시 기적입니다.

뽀뽀뽀뽀해도 기적은 '사랑'이겠지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아 함께하는 마음. 실로 대단하네요. 기적이 이렇게 많을 줄은, 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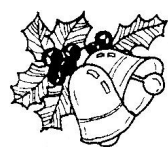
언제였던가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제 눈 앞에 제 아들 녀석이 아장아장 걸어오는 겁니다. 요것도 기적. 덜컥 겁이 날 만큼 행복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우리 인간은 결국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죽게 마련이니, 살아 숨쉬며 만나고, 헤어지고, 바라보던 그 순간 모두가 기적인 셈입니다.

이제는 제 키를 훌쩍 넘긴 아들 녀석의 방을 노크 몇 번 대충 두드리고는 들어가곤 합니다. 한참 동안 함께 음악을 듣고,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역시 기적입니다. 아내의 잔소리도, 고요한 새벽의 바람소리 역시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게 기적이었다니. 어찌면 우리 인간의 죽음이란 이 역시 기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행이 있어야 행복을 아는 걸 테니.

얼마 전, 은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학 때 은사님이라고 간단히 부르기엔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결혼식 때에는 흔쾌히 주례도 서주셨지요. 명예 가득한 삶을 살다 불명예로 점철된 인생. 삶의 모든 걸 바쳤던 예술혼. 그 분과는 늘 술을 마시고, 식사를 했던 기억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감정 역시 기적이겠지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무는 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거예요.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연극처럼 밤이면 각자의 이부자리로 들어가며 잠시 암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적이지요. 친구들을 자주 만나세요. 전화도 자주 거시고. 싱거운 농담을 주고 받으세요. 이 역시 기적일 테니.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 찬란한 기적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음미합니다. 올 한 해 역시 고맙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Спасибо за этот год! Удачи!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Годом!



Гороскоп на 2023 год для всех знаков зодиака

Самый точный и полный гороскоп на 2023 год Водяного Кролика по знакам зодиака.

Покровителем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удет Черный Водяной Кролик. А также это четвертый цикл по восточ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Азии такой год считается счастливым. Кролик приготовил много сюрпризов каждому представителю гороскопа, и есть большая надежда, что они будут приятными.

Овен

Уже с конца 2022 года люди этого знака могут почувствовать нарастание внутренней силы 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 Овнам Кролик придет раньше других знаков зодиака. Их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 не бояться брать в свои руки больш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внов ждет карьерный рост или новый источник дохода. Точно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2023 год превзойдет все ожидания. А вот в личной жизни следует поменять свои планы на диаметрально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Если вы одиноки, то начинается отличный период для поисков второй половинки. Семейные Овны должны провести анализ своих отношений: все ли их устраивает, если нет, то больше терпеть не имеет смысла.

Телец

Главное настроение Тельца в 2023 году — это изменить мир. Как вы знаете, для успеха в этом вопросе стоит начинать с себя. Сначала простое — внешние изменения, а затем можно переключиться и на привычки. Перед тем, как Тельцы начнут трансформацию, им стоит уяснить, что в погоне за идеалом все-таки нужно считать деньги. Особенно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2023 года будет максимально рискованной для финансов. По поводу заработка все просто: если Тельцы хотят жить в достатке, придется очень много работать. К сожалению, 2023 год не принесет легких денег. В делах амурных больше повезет свободным Тельцам, их окружит круговорот романт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уже с января. Осталь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этого знака нужно максимально держаться, чтобы не свалиться в бытовуху.

Близнецы

Пока ост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ороскопа только размышляют над тем, чтобы начать экспериментировать со своей жизнью, Близнецы пуస్తятся во все тяжкие. Удивительно, но им удастся обучиться новым навыкам и сразу выйти на хороший доход. Э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зависть у окружающих, но не обращайтесь на это внимания: вы хоть и любимчик Вселенной на весь 2023 год, все равно большая часть успеха — это ваша заслуга. В июле и августе есть риск потратить больше, чем заработаете. Если сможете избежать соблазна, то везение не покинет вас до конца 2023 года. Коммуникабельность Близнецов в год Кролика будет давать свои плоды. Вас ждет много встреч и знакомств, используйте их не только для личной жизни, но и для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Семейные Близнецы будут и дальше искать гармонию, а стоило бы начать ценить то, что имеете.

Рак

Людей этого знака в 2023 году будут беспокоить поиски ресурсов. Срочных

дел будет много, придется постараться, чтобы найти на все силы. Но результат не заставит себя долго ждать. Главная проблема Рака — правильно выстроить свой график, уверены, вы с этим прекрасно справитесь. В любовной сфере у Раков возможны неприятные перемены. Есть риск стать жертвой чужих интриг, поэтому избегайте любого флирта. Иначе доказать свою невиновность будет тяжело. Несмотря на хорошее начало 2023 года, Раки относятся к деньгам пренебрежительно. Лучше не играть с судьбой и все же беречь финансы, а также прекратить воспринимать все блага как должное.



Ле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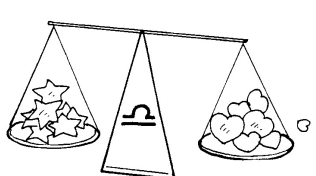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у Львов будут личный рост и успех в работе. Именно такие настроения управляют этим знаком зодиака. Тут не можем вас порадовать и сказать, что вы достигнете каких-то небывалых высот. Карьерный рост зависит только от ваших стараний, рассчитывать придется только на себя, помощи ждать неоткуда. Денег в 2023 году будет достаточно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но купить недвижимость или автомобиль без кредита вы не сможете. Трезво оценивайте свои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д тем, как захотите потратить больше положен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рорыв возможен только в конце года, когда вы решитесь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на другом поприще. В личной жизни все стабильно. Если вы счастливый семьянин, то неприятных сюрпризов не ожидается, а если одиноки, то новых романов ждать не приходится, но вам сейчас и не до цветочков с конфетами.

Дева

Девам стоит проявить решительность и смелость в вопросах карьеры, смены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или покупки недвижимости. Решать придется быстро, чтобы не упустить выгод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Если у людей этого знака есть желание поменять что-то в своей внешности, то для этого идеально подойдут сентябрь и октябрь. В любовной сфере Девы окажутся перед выбором — попробовать реанимир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или навсегда расстаться с партнером. Настоятельно советуем не спрашивать советов, чтобы потом не было соблазна скинуть на третьих лиц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года Девам стоит избегать расточительства, грамотный финансовый план вам в этом поможет. Но также не стоит забывать, что лучшая мотивация — это подарки себе.

Весы

Для Весов 2023 год будет активным. Придется заключать сделки, подписывать важные документы и даже выступать в роли консультантов. Помните, что рабочие советы, особенно по поводу финансов, сейчас стоят очень дорого, поэтому не стесняйтесь требовать услугу в ответ. После апреля доход Весов стремительно пойдет вверх.



(Оконча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Самые яркие события уходящего года, что ожидаете от нового года

Эльвира Лим,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Уходящий 2022 год для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был полон ярких, массовых и важных событий.

Институт летом 2022 года успешно завершил учебный год, сделав прекрасный выпуск, а в сентябре 2022 года принял в дружный коллектив талантливых студентов-первокурсников.

Контингент студентов и педагогов растёт, к нам приезжают учиться студенты с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амара, Севастополь, Томск и др.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омимо традицио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их как день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конкурс на лучшее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лимпиада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ярмарк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овлекают студентов в новые форматы онлайн-викторин, мотивируют к участию в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убликации первых научных работ.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весь коллектив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с наступающим 2023 годом. Желаю всем здоровья, оптимизма и талантливых студентов!

Анатолий Че, тренер по тхэквондо:

Ярких событий в уходящем 2022 году было много, а самых ярких, пожалуй, произошло два. Первое - это свадьба моего сын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венчания проходила в одном из храмов величественного и неповторимого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Очень радостно, что круг родственников расширился численно, и что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 географически!!

Второе яркое событие относится к тому, что дае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заряжаться энергией физически и эмоционально, дает массу эмоций и впечатлений, то, что субъективно увеличивает ощущение времени, которое в обычной суете так стремительно!

Это, конечно же, очередное, ежегодное, семей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азным странам. В этом году удалось продлить лето в Турции.

Сложно предугадывать, строить планы, что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это никому неведомо.

Было бы неплохо, если наступающий год был бы не хуже, чем уходящий!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ак известно, 2022 год был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поняли величие созданного за много веков сплава культурных ценностей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А еще этот год показал высокую значимость живущих в нашей стране людей для истории мира. Человечество в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XXI века пребывает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х ответов на общемировые и частные вопросы. По моему убеждению, мир отчетливо разделился на тех, кто, как в «Капитанской дочке» Пушкина, на стороне правды отстаивает славу своего Отечества (Миронов и Гринёв) или ищет комфорт и физическ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подобно Швабрину).

Год открыл многих настоящих людей, готовых пожертвовать собой и своим будущим во имя России. Кстати, год оказался щедрым и на многие юбилейные и значимые даты: 350 лет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етра I или 200-летие со дня битвы на Бородинском поле.

А еще ровно 80 лет назад в 1942 году Ахматова написала свое стихотворение «Мужество», используя в нем образ «великого русского слова».

В наступающем году советую перечитывать отечественную классиче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Взять хотя бы бессмертные «Войну и мир» Льва Толстого: Кутозов, Денисов, Долохов, семья Болконских, Ростовых и даже Курагиных — все они у писателя безапелляционно в едином порыве встречают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на Бородинском поле, забыв о былых обидах. Много важного можно найти у Достоевского, Короленко или Чехова. Конечно, не только в классике, но и в жизнеописаниях следует черпать силы и знания.

Де Сон Ен, художник:

В этом году закончил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еподавал в колледже искусство ровно 30 лет. Живу на пенсии и на творчестве.

В сентябре мои работ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выставке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сквозь время», которая открылась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сторическом музее Москвы. Вместе с работ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авторов там были выставлены и мои пейзажи. Около 10 произведений.

Не так давно в музее г. Холмска состоялась моя персон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гд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боты из моей личной коллекции и из фонд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В январе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Вокзальная, 5) состоится выставка к 30-летию отделения дизайна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Готовлюсь.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годом!

Алина Тен (на заслуженном отдыхе):

Год неплохой для меня. Я таки смогла перебороть болезнь, вновь ходить на занятия танцами. Выучили новый танец, протанцевали весь сезон. Это здорово!

Дочь обручилась, счастлива, я очень рада!

У меня ещё появились друзья и подруги.

Хочу новый год без войны, без пандемии. Хочу, чтобы люди стали добрее, умнее. Хочу, чтобы наш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роцветал...

Пусть у детей наших будет счастливое будущее! Я так хочу!

Виктория Цой, консультант по таможенным вопросам:

События на Украине разделили жизнь на до и после. Нет ни одной семьи, которую бы не затронуло происходящее. И если сначала в моем окружении были люди, которым казалось, что их это не касается, то сейчас таких не осталось, и в этом смысле 2022 год явился эпохальным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Все определяется только эти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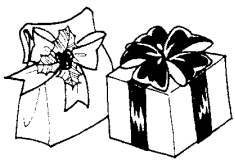
Личные события:

- Победа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нкурсе библиотеки имени О.П.Кузнецова, издание книги «Когда я буду морем». Невероятное чувство — держать книгу в руках, а потом читать хорошие отзывы, иногда трогательные до слез. «Читала всю ночь, не могла оторваться» - что может быть лучше этого?

- Гонка на мотоциклах «No place to run», и я впервые после локдауна смогла навестить родителей. Снова обнять близких, быть с семьей — теперь э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для меня. События на Украине меняли приоритеты. Главное — мир в домах и душах людей.

Всех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годом!

Виктория БЯ



Счастья в Новом Году!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утвердило бюджет на 2023 год

24 декабря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утвердило бюджет на 2023 финансовый год. В поддержк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законопроекта проголосовал 251 участник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четыре депутата голосовали против, 18 воздержались. Первый д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н Сок Ёля бюджет был принят на 22 дня позже срока,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законом. Его расходная часть составила 638 трлн 700 млрд вон (497 млрд 429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300 млрд (233 млн долларов) меньше, чем было заложено в бюджете, подготовле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окращение расходов произошло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три года. Одновременно были приняты 19 сопутству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в том числе, поправка к закону о корпоративном налог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ая его снижение на 1%. В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заявили, что «закулисные обсуждения» бюджета, проводившиеся правящими и оппозиционными силами, нанесли ущерб принципам демократии. Дискуссии сторон по наиболее спорному вопросу о снижении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налога продолжались до сам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выразили сожаление по поводу значительной задержки утверждения бюджет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выразила недовольство содержанием утверждённого бюджета. Как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емилось финансово поддержать активизацию экономики, однако под давлением оппозиции расходы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якобы были сокращены.

Предполагаемые беспилотники Севера пересекли меж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Предполагаемы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беспилотники пересекли границу РК.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26 декабря в 10:25 несколько «неопознанных объектов»,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принадлежащих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бнаружены в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городов Кимпхо и Пхачжу, а также на острове Канхвадо. Работа аэропорта Кимпхо была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одняли в воздух истребители и ударные вертолёты. При этом лёгкий реактивный штурмовик KA-1 по неизвестной причине потерпел крушение в уезде Хёнсон-гун. Оба пилота не пострадали.

РК и Япония обсудили проблему жертв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26 декабря в Токи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и Японии прове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по актуальным проблемам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включая компенсации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и Тихого океана МИД РК Со Мин Чжон встретилась с директором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и Океании МИД Такэхиро Фунакоси.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проблему компенсаций жертва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труд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Этот вопрос уже давно является камнем преткновения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Сеулом и Токио, хотя стороны активизировали усилия в обла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тив угроз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ась месса в память о жертвах Итхэвонской трагедии

25 декабря на площади Итхэвон в Сеуле, где установлен поминальный алтарь по жертвам Итхэвонской трагедии, несмотря холодную погоду собрались сотни людей. Они пришли разделить горе с семьями погибших и помолиться за упокоение душ.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мессы её участники прошли к первому выходу станции метро «Итхэвон», поблизости от которого в канун праздника Хэллоуин вечером 29 октября возникла давка, унёсшая жизни 158 человек. Ещё 197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и травмы различной степени тяжести. Это самая страшная катастрофа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с 2014 года, когда в результате затопления парома «Сэволь» у южного побережья страны погибли 304 человека. Между тем, как выяснилось, трагедии можно было избежать, если бы были своевременно приняты ме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Мать одного из погибших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молится, надеясь на суровое наказание виновных, а также за то, чтобы в будущем подобные трагедии не повторялись. Участники мессы назвали имя каждого погибшего, давая обещание молиться за каждого из них.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импорт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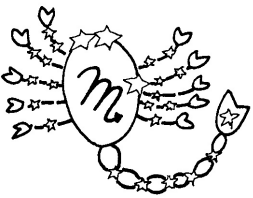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ноября,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3 млн 166 тыс. импорт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Это 12,4%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автомобилей в стране. Число импорт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превысил 1 млн в 2014 году, а 2 млн - в 2018 году. Доля импорт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постоянно растёт. В 2017 году она составляла 8,4%, а в 2021 году уже 12,1%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парка страны.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ы на отечественном рынке немецкие бренды - Mercedes-Benz, BMW, Audi и Volkswagen. (RKI)

Гороскоп на 2023 год для всех знаков зодиак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Постарайтесь не потратить все сразу, вложить рекомендуется в недвижимость или инвестиции, но при условии, если вы разбираетесь в этой теме. Весы и в любовных делах будут максимально решительны, не исключены свадьба или развод, все зависит от ваших потребностей. В 2023 году Весам стоит взять всю инициативу в свои руки, только так есть надежда на счастье. Если решитесь на новые романы, то проследите, чтобы человек был достойный, иначе потратите энергию в пустот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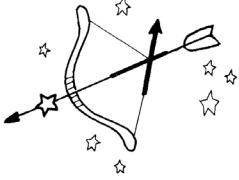
Скорпион

Скорпион будет занят поиском баланса. Людей этого знака начнет мотать из стороны в сторону, а их решение нельзя назвать адекватным.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проблем в 2023 году, необходимо найти гармонию в себе и быть готовым к любым поворотам судьбы. Финансово преуспеть этому созвездию удастся при помощи своего дела. Скорее всего вы откроете свой бизнес или уйдете во фриланс. Если захотите остаться в найме, то денег будет хватать только на самое необходимое. Скорпион —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ороскопа, которому в 2023 году представится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вернуть свою старую любовь. но учтите, что такие шаги требуют стараний с вашей стороны. Скорпионы очень злопамятны. Если захотите начать все сначала, то придется навсегда забыть старые обиды.



Стрелец

Погрузиться в финансы потребует Стрельцам. Самым правильным решением будет завести таблицу расходов и доходов, но вы можете просто расставить приоритеты и не тратить много средств на товары не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Чтобы добиться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стоит также много внимания посвятить таймингу: тщательно распланированный распорядок дня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больше, а устать при этом меньше. Стрельцам не стоит игнорировать знакомства,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з-за полезных связей. В личной жизни будет практически без изменений: свободные Стрельцы предаются череде легкомысленных встреч, а семей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того знака будут пытаться удержаться от соблазна сходить налево.



Козерог

В начале 2023 года Козерог будет чувствовать усталость и опустошенность. Всеми виной напряженный график конца 2022 года. Прийти в себя удастся только к марту. Летом Козерогам придется бороться с повышенной эмоциональностью и надоедливыми друзьями, которые то и дело будут мешать работе. В общем год обе-



щает быть интересным. Финансовая удача будет на стороне Козерогов. Черный Кролик принесет хорошую прибыль, которую вы с чистой совестью можете потратить на себя. Вам копить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ведь Козероги полны иде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заработать еще больше. В опасности окажутся свобод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того знака: они могут стать жертвой безответной любви. Старайтесь держать чувства под контролем, особенно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Если все же слез разочарований избежать не удалось, то направляйте негативную энергию в работ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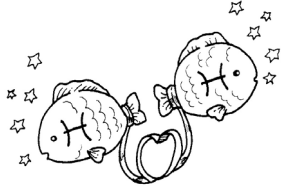
Водолей

Водолеям нужно сохранить то, что они имеют. Это касается не только работы и денег, но и партне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огут быть конфликты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Людям этого знака придется выбирать: удовлетворить свои потребности или решать проблемы близких людей. Старайтесь свести жертвенность на минимум и,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конфликтных ситуаций, не давайте напрасных обещаний. Год будет весьма прибыльным для Водолея, но придется бороться с соблазнами спустить выручку на удовольствия. Помните: деньги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и приносить доход. Если не решается вложить средства в бизнес, то хотя бы положите деньги под процент в банк. Еще очень хорошо направить финансы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Если нет времени самому грызть гранит науки, то повысите IQ у своих детей. В любовных отношениях 2023 год будет очень страстным. Все Водолеи захотят еще раз завоевать свою любовь, и неважно, что скоро отмечать золотой юбилей со дня свадьбы. Вы уверены, что каждый день необходимо показывать свои чувства. Свободные Водолеи наконец-то обретут истинное счастье, с чем вас и поздравляем.



Рыбы

У Рыб в 2023 году на повестке дня будут стоять два вопроса: раб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старайтесь держать эти вектора в гармонии, иначе неизбежны просадки в одном из направлений. Рыбам придется научиться идти на компромисс, даже если они хотят доказать свое превосходство. Кролик не любит капризов или агрессии. Если вы становитесь источником конфликтной ситуации, то ждите скорого наказания. В целом год хорош для заработка, но нужно сохранять бдительность, чтобы не стать жертвой мошенников. Также не стоит обманывать себя в ожиданиях, разочарование надолго выбьет из колеи. В 2023 году придется отказаться от шаблонов, пришло время удивлять вторую половинку, чтобы ваш брак стал еще крепче. Свободные Рыбы должны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эффекта неожиданности и перестать намеренно искать спутника жизни. Уже сейчас можете удалить свое объявление на сайте знакомст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нтернет сайтов

США повышают масштабы участия в совместных учениях с РК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йск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совместных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вооружёнными силами комбинированных учениях, в которых вместо боевых патронов используются лазеры, на уровне батальона. До сих пор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таких учениях на уровне роты.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может быть связано с укреплением совместной боеготовности в ответ на рост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25 дека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сообщили, что в 2023 году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на уровне батальон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двух комбинированных 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боевой подготовки сухопутных сил (КСТС). Имитация боя с применением лазера вместо боевых патронов оценивается как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енная к реальным условиям.

KBS World

Фильм «Решение уйти» вошёл в шорт-лист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Оска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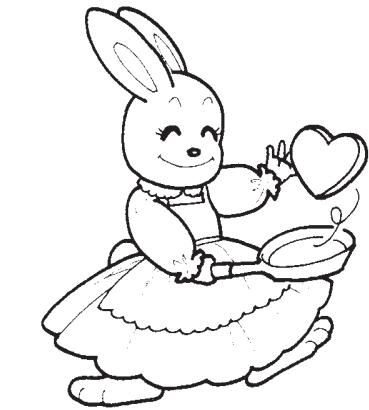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ак Чхан Ука «Решение уйти» вошёл в шорт-лист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ремию «Оскар»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иностранный фильм». Американская академия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их искусств и наук объявил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список номинантов 21 декабря. Из 92 работ, выдвинутых на премию в данной категории, было отобрано 15 кинокартин. Пять из них войдут в список финалистов, который будет объявлен 24 января. 95-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й «Оскар» состоится 12 марта 2023 года в театре «Долби» в Лос-Анджелесе.

KBS World

Впервые с начала зимы на реке Ханган появился лёд

Поскольку холодная погода продолжается уже почти неделю, на реке Ханган в пределах Сеула появился лёд. Как сообщила Корейская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ека замёрзла более чем на две недели ра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Толстый лёд образовался на участке длиной 100 метров между второй и четвертой опорами моста Хангандэ, который соединяет столичны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круга Ёнсан-гу и Тонджак-ку. В предыдущие зимы первый лёд образовывался на реке Ханган примерно 10 января, а прошлой зимой река не замерзала.

KBS World



A black and white line drawing of a cute rabbit sitting and holding a carrot. The rabbit has long ears, a small nose, and is looking towards the left. It is holding a carrot in its paws. There are some small flowers or leaves on its head.

절기		소 한	대 한	입 춘	우 수	경 칩	춘 분	청 명	곡 우	입 하	소 만	망 종	하 지	소 서	대 서	입 추	처 서	백 로	추 분	한 로	상 강	입 동	소 설	대 설	동 지
(양력)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일	6	20	4	19	6	21	5	20	6	21	6	21	7	23	8	23	8	23	8	24	8	22	7	22

사할린주 수산업, 2022년에 확고한 성장세 보여

2022년 사할린주의 수산업이 전반적으로 수치상 확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 수산업부는 보고 있다.

이러한 수치의 증가는 순조로운 조업 상황과 연안 가공시설로 수산물 공급에 행정적 장애들 완화, 선박의 현대화와 장비 교체, 새로운 수산물 가공공장 건설과 관련돼 있다.

12월 초 사할린주 수산업자들의 조업으로 약74만 톤의 생선을 어획했는데 이는 2021년 대비 22%가 증가한 수치다. 대체로 수산물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많다. 명태는 지난해보다 7만2,200톤이 증가한 39만1,700톤 어획, 태평양 청어는 지난해보다 7천200톤이 증가한 5만6,500톤을 어획, 정어리는 지난해 대비 2만8,100톤이 증가한 5만5,800톤을 어획했고, 연어류는 성어기에 어획하여 태평양 연어가 지난해보다 3만8,100톤이 적은 9만4,900톤이 어획됐다. 사할린주에서는 수산물 제품이 증가

하여 올해는 생산액 790억 루블리에 달하는 42만3,800톤이 생산돼 수산물 제품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8%가 증가했다. 가공업자들은 냉동생선의 생산량을26.4% 늘려 생산액이 32만4,200톤에 달한다. 그중에 청어가 45.2%, 생선살(다진 생선살)은 2.8배 증가해 생산량은 34.4% 증가했다. 또한 생산량이 증가한 제품들은 건어물이 17.4%, 훈제 생선이 2.1%, 연어알이 3.8%, 신선한 생선 통조림이 10.8%, 토마토 소스 생선 통조림이 57.1%, 기름에 절인 생선이 23.2%, 가공 생선 통조림이 30.4%이다.

사할린주에서 태평양 연어 양식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양식업체가 71개로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3개 연어 양식장이 건설되어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올해는 연어 치어 12억 마리가 방류됐다. 11월15일 경에는 양식장들의 부화장에 14억 개의 연어알을 부화시켜 성장이 진행 중이다.

사할린주에서는 양식사업을 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7개 업체가 늘어나 35개에 이르며, 치어 방류 또한 45% 증가했다.

사할린의 생선제품은 해외에도 공급되고 있다. 사할린의 생선제품 수출량은 2021년보다 32%가 증가한 26만7,600톤에 달하며,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0.1% 증가한 미화7억7,090만 달러에 달한다. 2022년 11월에 수산업으로부터 들어온 주 예산 수익은 142억 루블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유사기간 대비 3배가 증가했다.

수산업과 양식업에 종사자들은 7천여 명에 달하여 이 산업에 종사자가 7% 증가했다.

생선 및 수산물 가공 종사자는 2,884여 명이며, 조업 업체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12만4,900루블리로 9.2% 올랐다. 올해 고정자본에 투자율이 급격히 올라 52억 루블리에 달하면서 2021년보다 투자율이 54% 증가했다.

투자자들은 선박 확보와 생산의 현대화, 연어 양식장과 가공공장 건설에 투자했다.

사할린주 수산업체들에게는 1억4,090만 루블리의 국가지원이 제공됐다.

주민들에게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는 것은 수산업부의 중요한 업무 방침이다. 사할린 주민들에게 좀더 저렴한 시장가격으로 이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에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450톤이 판매되었는데 이에 대비 2021년에는 285톤이 판매됐다. 사할린 주민들은 태평양 연어를 1kg당 50루블리 - 138 루블리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시장가격으로 가자미는1kg당 120루블인데 65루블리 -100루블리 가격으로 판매, 대구(머리 제거)는 1kg당 85루블리 -144루블리 가격으로(시장가격은 1kg당 200루블리부터), 명태는 1kg당 50루블리 -90루블리 가격으로(시장가격은 1kg당 120루블리부터)판매했다.

또한 올초부터 사할린주 주민들에게는 53톤의 신선한 생선이 무료로 제공됐다.

2023년 계묘년 락별 운세

<쥐띠>

인생은 한순간이다. 지금까지 뿌려놓았던 씨앗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한 해이나,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릴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으니 과욕은 금물이다. 순리대로 하나씩 거둬들인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확실한 내 것이 될 수 있다. 올해는 들어온 재물을 지켜야 하는 시기이므로 무리한 투자나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천천히 뿌려두었던 씨앗을 거두어들이는 마음으로 하나씩 추진하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부지런히 움직여라. 기다린다고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북서쪽으로 움직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소띠>

길함이 많은 해이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행함에 있어 따뜻한 인정이 있어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마음이 열을 이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위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넓은 아량으로 베풀면 그게 덕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부지런히 움직이면 재물이 쌓이는 형국이니 게으름을 멀리하라. 내가 원하는 것만큼 노력해야 하며 남에게 베풀어야만 주위에서 인정을 받는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 하는 일에 매사 최선을 다하라. 남서쪽으로 길을 잡으면 원하는 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호랑이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매사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업을 한다면 서류는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며, 친한 사람일수록 확실하게 서류관리가 확실해야 손해가 없다. 너무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거나 일을 새로 벌인다면 막심한 손해가 따라오는 해이니 현상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주위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박하게 군다면 불행을 자초하기 쉬우니 좀 더 겸양해져야 하고, 인연을 소중히 생각해야 대인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일은 시작하지 말라.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지니 현재 내 위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동북쪽에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

<토끼띠>

세상의 모든 고민은 혼자서 떠안고 가는 상이로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모든 일에 걸림돌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행동함으로써 주위사람들로부터 힘든 일을 겪게 된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생활을 하라. 노력하는 것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차분히 진행하는 일은 성사가 되나 너무 조급하게 시작하는 일은 성사가 어렵다. 내 자존심이 문제가 되니 원하는 걸 얻으려면 적당히 자존심도 죽여야 얻을 수 있다. 재물은 욕심을 버리고 안정적으로 투자 하라. 동북방향에 길

이 있으니, 내가 문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으니 생각만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찾아오지는 않는다.

<용띠>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큰 이익이 없었다면 올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한다면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손해를 보지마라. 주위사람이 내 밥그릇 챙겨 주는 게 아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대처한다면 큰 손실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들어온 만큼 남에게 베푼다면 오히려 복이 되어서 더 많은 재물이 들어오나 그걸 바라고서 베푼다면 오히려 화가 될 것이다. 배신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서쪽으로 움직이면 행운이 따른다.

<뱀띠>

지금껏 겪었던 고난이 일순간에 풀리는 형국이니 이처럼 좋을 수가 없다. 우직하게 한 우물만 팼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그동안 서러웠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따뜻한 봄날에 꽃이 만개하듯 하나씩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러나 성급함은 후회를 낳을 것이니 순리대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시작과 행동함은 좋으나 끝마무리를 확실히 하지 않아 손해가 따라오니 항상 마무리를 잘하여야 이득이 따를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서류를 잘 챙겨야 할 것이며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긴다면 계약할 시에 꼼꼼하게 따져야 손해보는 일이 없다. 남서쪽으로 움직이면 행운이 따른다.

<말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바라. 당장에 큰 이익이 온다고 해서 덥석 물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아무리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올해와 내년에는 손실이 따라오는 시기이니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라. 내 여유 안에서 투자하는 것 또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며, 너무 많은 곳에 투자하지 말라. 헛힘만 쓰는 격이니 소규모의 투자가 길하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동남방향으로 움직이라 시작은 어려울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될 것이니 하는 일에도 신이 날 것이다.

<양띠>

좀 더 겸손해지고 열심히 움직인다면 내가 원하는 직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요, 주위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러운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은 무릇 겸손해야 모든 운이 따라오는 것이니 매사에 나를 낮춘다는 마음으로 생활하라. 주위사람들을 너무 믿지 않는 것도 나에게 화를 부르는 것이니 투자를 하거나 이동수가 생겼을 때는 항상 주위 사람들과 한데 자문을 구하라. 인간적으로 성실하게 나간다면 반드시 주

변의 도움을 받게 된다. 행운을 바란다면 동남쪽으로 움직여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해도 힘든 세상인데 자신의 재주만 믿고 너무 나태해지니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운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올해는 필히 잡아야 할 것이다. 재수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펼칠 수 있는 마당이 있어야 하니,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매진해야 하겠다. 이익이 생긴다고해서 당장 코앞만 보고 투자하지 말라. 주위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야 좋은 일도 많이 생긴다. 딱 잘라 거절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서북방향으로 길을 잡아라.

<닭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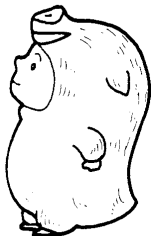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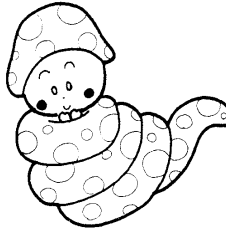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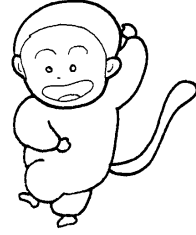
열두 지지 중에서 예지력이 뛰어난 지지로써 무슨 일이든지 남보다 먼저 느끼고 깨닫는 게 있으니 항상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힘든 일을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좋은 운이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으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이미지까지 다 실추시키고 잃어버릴 수 있으니 각별히 말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돈은 들고 돈다는 옛말이 있다. 그만큼 잘 유용하게 써야 내게도 이득이 된다는 말이다. 무조건 아끼려고만 하지 말고 투자처는 본인의 느낌으로 찾아가라. 길한 방향은 남쪽, 서쪽이다.

<개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본인의 독선적인 기질로 인하여 주위사람들과 충돌이 생기니 한발 뒤로 물러난다면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으리라. 개인적인 이익에 눈을 돌리지 말라. 거국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제할 줄 안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며 사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원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서남방향으로 가면 행운을 잡을 수 있다.

<돼지띠>

열두 가지 재주와 열두 가지 복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생활함에 있어서 적절히 잘 쓰기만 한다면 매사에 편할 것이다. 올해는 욕심을 부릴수록 모든 것을 잃게 되니 과한 욕심은 삼가라. 나 혼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 주위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면 필히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투자하고 두 번 투자해서 잘 된다고 하여 마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적절한 선에서 거둬들인다면 손해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북방쪽으로 움직여라. 매사에 깔끔하고 부지런해진다면 원하는 곳에 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자신의 만화를 그려봐〉경연은 독자들을 위한 유쾌한 선 물로서 경연 결과는 내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이리 나 셰필로와 마케팅 및 홍보부 부장이 말했다.

Юные зрители Чехов-центра получают в подарок комиксы

С 23 дека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е атральном центре им. А.П. Чехова стартовал те атральный марафон. Впервые в качестве новогоднего подарка маленьким зрителям премьерного спектакля "Летучий корабль" (6+) Чехов-центр подготовил комикс (6+). В нем четыре авторские истории, рассказываю щие о новогодних приключениях Забавы с Иваном, Бабок Ёжек, Полкана и других персонажей русских на родных сказо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Чехов-центра.

Автором идеи выступила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 атра Татьяна Корнеева:

"Много лет подряд мы дарили нашим юным зри телям сладкие новогодние подарки, но потом решили: было бы здорово, если бы у них оставалось что-то на память о театре. И два года назад мы выпустили книгу в стиле "Вредных советов" (6+). Она так понравилась маленьким сахалинцам, что мы решили и дальше раз вивать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Сейчас, видя горящие глаза детей, когда они получают специальный выпуск "За бавных историй" (6+) и начинают читать его прямо в фойе театра, я понимаю, что создать комикс было от личной идеей".

Работа над ним началась задолго до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 Над первым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выпуском комиксов трудилась большая команда. Сна ч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литературно-драматургической ча сти Кристина Дедухина-Садрук и специалист по связям с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Анна Скуднова придумали истории для будущего комикса. Фотограф Сергей Красноухов провел фотосессию с артистами, занятыми в новгод нем спектакле. После этого началась кропотливая ра бота сотрудников отдела маркетинга и рекламы театра.

— Каждую фотографию мы обрабатывали в графич еском редакторе. Переносили наших героев в различ ные сказочные локации — лес, болото, русскую избу. Всего было обработано более 70 фотографий. При ятным бонусом для каждого читателя станет конкурс "Нарисуй свой комикс", итоги которого мы подведем в феврале, —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маркетинга и рекламы Ирина Шепилова.

러시아 국민들, 새해 전야에 자신의 소원 이야기

러시아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 전야 어떤 소원 을 빌고 싶은지에 대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응답자 대다 수는 자신과 친지들의 건강을 빌었고, 18%는 100만 달러가 담긴 캐리어를 찾고 싶다고 했다.

라бота 루(Работа.ру)와 '스베르 즈도로비에' 서비스는 러시아 국민들이 새해 전야에 정말 어떤 소원을 빌고 싶어하 는지 알아보기 위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는 '이즈베스티야' 통신이 전했다.

대부분의 응답자(67%)가 자신과 친지의 건강을 빌거라 했고, 새해에는 그저 행복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39%, 가장 중 요한 소원으로 그 어떤 재앙이나 재난이 없기를 바란다는 응 답이 36%였고, 20%는 아파트나, 자동차, 개인 별장을 사고 싶 다는 소원을 말했다.

설문 응답자의 20%가 자신의 소명을 찾고 싶다고 했고, 18%의 국민은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찾게 해 달라는 소원 을 빌겠다고 했다. 또한 응답자의 15%는 일생의 사랑을 찾 고 싶다고 했고, 8%는 2023년 내내 원격 근무를 하고 싶다 고 답했다.

내년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 중에는 46%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길 바랐고, 38%는 새로운 전문교육을 받고자 했고, 36%가 다이어트를 목표로 삼았다.

29%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따르겠다고 했고, 26%는 새로 운 직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수강에 22%, 다른 도시로의 이주 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16%,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고 한 사 랍은 15%였다. 다른 목표를 가진 러시아 국민 중 15%는 여 행 시작을, 8%는 운동하기, 5%가 새로운 취미 찾기를 목표 로 세웠다.

Россияне рассказали о своих желаниях в новогоднюю ночь

Россияне в ходе опроса рассказали, какие желания загадают в новогоднюю ночь-2023. Большинство ре спондентов пожелают здоровья для себя и близких, а 18% мечтают найти чемодан с миллионом долларов.

Сервисы Работа.ру и «СберЗдоровье» провели со вмест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с целью выяснить, какие имен но желания россияне загадают в новогоднюю ночь.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иводят «Известия». Большинство опрошенных (67 процентов) намере ны загадать здоровье для себя и близких. Хотят просто быть счастливыми в новом году 39%. Еще 36% расска зали, что их главное желание - это отсутствие каких-ли бо катаклизмов и катастроф.

Около 20% опрошенных хотят пожелать себе ку пить квартиру, автомобиль либо дачу. Почти такое ж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20%) желают найти свое призвание, а 18% жителей России загадают себе найти чемодан с миллионом долларов.

Новогодняя мечта около 15% опрошенных - найти любовь всей своей жизни, а 8% — провести весь 2023 год на удаленной работе.

46% опрошенных сообщили, что среди главных целей на будущий год - проводить больше времени с семьей и близкими. 38% хотят обучиться новой профес сии, а 36% — похудеть. Пообещали вести здоровый об раз жизни 29%, а в планах у 28% - найти новую работу.

Курсы по повышению квалификации планируют пройти около 22% россиян. Переезд в другой город интересует 16% опрошенных, а 15% - намереваются отказаться от вредных привычек.

Среди других целей россиян - начать путешество вать (15%), заняться спортом (8%) и найти себе новое хобби (5%).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3 года

Заканчивается подписная компания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3 г.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 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е полугодие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 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3-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